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의 건강 증진 수준과 취약 분야를 쉽게 알 수 있는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개발했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근로 특성과 건강 실태, 건강 증진 활동 현황 등 3개 분야의 20개 평가 항목을 입력하면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 수준을 100점 만점 기준 점수로 알려준다.

근로 특성의 경우 사업장의 장년 근로자 수, 고객 응대 업무 근로자 수 등이 주요 내용이고, 건강 실태는 사업장의 최근 3년 간 근골격계질환자 수 등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증진 활동 현황은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용 실태 등을 입력하게 돼 있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건강 상 잠재 위험도나 필요한 건강 증진 분야도 제시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 현장의 질병과 근로 특성을 반영한 첫 한국형 평가 도구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활용을 돕기 위해 평가 메뉴얼도 함께 제공된다.

우리 회사 건강 지수는 몇점?... 안전보건공단, 기업 건강증진지수 개발.보급

김서연 기자 입력 : 2016.05.04 13:35 | 수정 : 2016.05.04 13:35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수준과 취약분야를 쉽게 알 수 있는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개발.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 스스로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취약부분을 보완해 효율적인 건강증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됐다.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건강상 잠재위험도와 요구되는 건강증진 분야도 알려준다.

제시된 3개 분야의 20개 평가항목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해 알려준다.

3개 평가분야는 '근로특성'과, '건강실태', '건강증진 활동현황' 등이다.

근로특성의 경우, 사업장의 장년근로자 수, 고객응대 업무 근로자 수 등의 내용이며, '건강실태'는 사업장의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증진 활동현황'은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등을 입력하면 된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뿐만 아니라, 평가항목을 통해 사업장의 건강상의 잠재 위험도와 요구되는 건강증진 분야도 알려준다.

한편 공단은 기업 건강증진지수의 확산을 위해 이날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등 5개 근로자 건강증진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ssui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당신의 회사는 얼마나 건강한가요?

입력 2016-05-04 12:00



www.shutterstock.com · 334988492

우리 회사는 얼마나 건강할까요?

회사가 스스로 회사 전체의 건강수준이나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점수로 확인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수가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개발한 '기업건강증진지수'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 수준과 취약분야를 쉽게 알 수 있는 이 지수를 개발해 적극 보급하기 위해 4월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등 5개 근로자 건강증진 유관단체들과 활용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업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이 스스로 건강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로특성, 건강실태, 건강증진 활동 현황 등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20개 평가항목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화돼 나오는 방식입니다.

근로특성은 사업장의 장년근로자 수, 고객응대 업무 근로자 수 등을 평가하도록 돼 있고, 건강실태는 사업장의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수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강증진 활동현황은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활동 현황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업건강증진지수가 종합적 건강수준을 평가할 뿐 아니라 사업장의 건강상 잠재 위험도와 보완할 분야도 알려준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5점으로 구성된 '잠재 위험도'는 장년이나 장시간, 고객응대 업무 등의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식이죠.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 지수는 국내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의 질병발생 특성과 고령·장시간·야간·고대근무 등의 근로특성 등을 반영한 최초의 한국형 기업건강평가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해럴드

우리 회사 건강지수는 몇 점?...안전보건공단 '기업 건강증진지수' 개발

2016-05-04 14:39

[해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지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됐다.

안전보건공단은 전국 사업장에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 스스로 종업원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취약 부분을 보완해 효율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표다.

‘근로특성’, ‘건강실태’, ‘건강증진 활동현황’ 등 3개 분야의 20개 평가항목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해 알려준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평가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won@heraldcorp.com

안전보건공단, '기업 건강증진지수' 보급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전국 사업장에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개발,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 스스로 종업원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취약 부분을 보완해 효율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표다.

'근로특성', '건강실태', '건강증진 활동현황' 등 3개 분야의 20개 평가항목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해 알려준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평가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ssahn@yna.co.kr

안전보건공단, 기업 건강증진지수 개발·보급

사업장 건강 위험도 및 건강증진 활동방향 제시

(세종=뉴스1) 한중수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위험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개발·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 스스로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취약부분을 보완해 효율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근로특성'과 '건강실태', '건강증진 활동현황' 등 3개 분야의 20개 평가항목을 입력하면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해 알려준다.

근로특성은 사업장의 장년근로자 수, 고객응대 업무 근로자 수 등의 내용이며 건강실태는 사업장의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증진 활동현황은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활동 현황을 입력하면 된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활용하려면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평가 서식을 내려받으면 된다.

한중수 기자(jepoo@)

우리 회사 건강지수는 몇 점?..안전보건공단 '기업 건강증진지수' 개발

입력시간 | 2016.05.04 15:39 | 정태선 기자 windy@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지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됐다.

안전보건공단은 전국 사업장에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 스스로 종업원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취약 부분을 보완해 효율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표다.

'근로특성', '건강실태', '건강증진 활동현황' 등 3개 분야의 20개 평가항목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해 알려준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평가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의 건강은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사업장 스스로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기업의 건강증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안전보건공단, '기업 건강증진지수' 개발·보급한다

근로특성, 건강실태 등 3개 분야 20개 평가항목 구성

입력 : 2016-05-04 13:35:51 | 수정 : 2016-05-04 13:35:51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수준과 취약분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개발·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근로특성', '건강실태', '건강증진 활동현황' 등 3개 분야의 20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항목에는 사업장 장년근로자 수, 고객응대 업무 근로자 수 등(이상 근로특성),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수 등(건강실태), 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실태, 스트레스 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활동 현황 등(이상 건강증진 활동현황)이 포함됐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평가서식을 내려받아 각 평가항목을 입력하면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건강 수준뿐 아니라 사업장의 건강상 잠재 위험도와 요구되는 건강증진 분야도 알 수 있다.

공단은 "이 지수는 국내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의 질병발생 특성과 고령·장시간·야간·교대근무 등 근로특성을 반영한 기업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첫 번째 한국형 평가도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기업 건강증진지수 확산을 위해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국 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등 5개 근로자 건강증진 유관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단은 이들 단체와 함께 회원사 및 소속 사업장에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보급하고, 사업장 보건관리자 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의 건강은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사업장 스스로 건강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기업의 건강증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업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됐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각 사업장별 종합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건강지수는 근로특성과 건강실태, 건강증진 활동현황 등 3개 분야 20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평가항목을 통해 사업장의 건강상의 잠재위험도와 요구되는 건강증진 분야도 함께 제시됩니다. 특히 잠재위험도는 장년이나 장시간 근무, 고객응대 업무를 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을 수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요구되는 건강증진분야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뇌심혈관질환 등 4개 분야를 점수화 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이번에 개발된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산업현장의 각종 질환과 근로 특성을 반영한 기업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첫번째 한국형 평가도구로, 이 도구를 통해 각 사업장의 건강증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일보

☞ 홈 > 뉴스 > 전국뉴스 > 사회

“우리 회사 건강지수는?”…안전보건공단 ‘기업 건강증진지수’ 개발

2016년 05월 04일 (수)

경상일보 ☞ webmaster@ksilbo.co.kr

회사 전체의 건강수준이나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점수로 확인할 수 있는 지수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이 개발한 '기업건강증진지수'다.

안전보건공단은 4월 이 지수를 적극 보급하기 위해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등 5개 근로자 건강증진 유관단체들과 활용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기업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이 스스로 건강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특성, 건강실태, 건강증진 활동 현황 등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20개 평가항목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화돼 나오는 방식이다.

근로특성은 사업장의 장년근로자 수, 고객응대 업무 근로자 수 등을 평가하도록 돼 있고, 건강실태는 사업장의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증진 활동현황은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활동 현황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업건강증진지수가 종합적 건강수준을 평가할 뿐 아니라 사업장의 건강상 잠재 위험도와 보완할 분야도 알려준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5점으로 구성된 '잠재 위험도'는 장년이나 장시간, 고객응대 업무 등의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식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 지수는 국내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의 질병발생 특성과 고령·장시간·야간·교대근무 등의 근로특성 등을 반영한 최초의 한국형 기업건강 평가도구”라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한국형 '기업 건강증진지수' 개발·보급

2016년 05월 04일 (수) 17:43:51 서성훈 기자 ☞ jebo1@naver.com



▲ 기업 건강증진지수 업무협약식 ©뉴스타운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수준과 취약분야를 쉽게 알 수 있는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개발·보급한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 스스로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취약분야를 보완해 효율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제시된 3개 분야의 20개 평가항목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을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화 하여 알려준다.

3개 평가분야는 '근로특성'과, '건강실태', '건강증진 활동현황' 등으로, '근로특성'의 경우, 사업장의 장년근로자 수, 고객응대 업무 근로자 수 등의 내용이며, '건강실태'는 사업장의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증진 활동현황'은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활동 현황을 입력하면 된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뿐만 아니라, 평가항목을 통해 사업장의 건강상의 잠재 위험도와 요구되는 건강증진 분야도 알려준다.

예를 들어, 5점 척도로 된 '잠재 위험도'는 장년이나 장시간, 고객응대 업무 등의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내며, '요구되는 건강증진분야'는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스트레스, 생활습관개선 분야 등 4개 분야를 점수화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지수는 국내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의 질병발생 특성과 고령·장시간·야간·교대근무 등의 근로특성 등을 반영한 기업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첫 번째 한국형 평가도구로써 의미를 갖는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의 건강은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사업장 스스로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기업의 건강증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기업 건강증진지수' 개발·보급

2016년 05월 08일 (일) 01:59:27 김영명 기자 ☞ youngmyeong@naver.com

(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수준과 취약분야를 쉽게 알 수 있는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개발·보급한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 스스로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취약분야를 보완해 효율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됐다.

제시된 3개 분야의 20개 평가항목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을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화 하여 알려준다.

3개 평가분야는 '근로특성'과, '건강실태', '건강증진 활동현황' 등으로 '근로특성'의 경우, 사업장의 장년근로자 수, 고객응대 업무 근로자 수 등의 내용이다. 이어 '건강실태'는 사업장의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증진 활동현황'은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활동 현황을 입력하면 된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뿐만 아니라, 평가항목을 통해 사업장의 건강상의 잠재 위험도와 요구되는 건강증진 분야도 알려준다.

예를 들어, 5점 척도로 된 '잠재 위험도'는 장년이나 장시간, 고객응대 업무 등의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 '요구되는 건강증진분야'는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스트레스, 생활습관개선 분야 등 4개 분야를 점수화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지수는 국내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의 질병발생 특성과 고령·장시간·야간·교대근무 등의 근로특성 등을 반영한 기업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첫 번째 한국형 평가도구로써 의미를 갖는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평가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되며, 활용을 돕기 위한 평가 매뉴얼도 같이 제공된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기업 건강증진지수'의 확산을 위해 5월 4일 서울에 소재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등 5개 근로자 건강증진 유관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들 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회원사 및 소속 사업장에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보급하고, 사업장 보건관리자 교육에 활용하는 등 사업장 활용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의 건강은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사업장 스스로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기업의 건강증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한국형 ‘기업 건강증진지수’ 개발·보급

2016년 05월 04일 (수) 22:35:03

장수경 기자 jsk21@newsj.com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이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수준과 취약분야를 쉽게 알 수 있는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개발·보급한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 스스로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취약 부분을 보완해 효율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됐다.

제시된 3개 분야의 20개 평가항목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을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화해 알려준다. 3개 평가분야는 ‘근로특성’ ‘건강실태’ ‘건강증진 활동현황’ 등이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 수준뿐만 아니라, 평가항목을 통해 사업장의 건강상 잠재 위험도와 요구되는 건강증진 분야도 알려준다.

이 지수는 국내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의 질병발생 특성과 교대·장시간·야간·고대근무 등의 근로특성 등을 반영한 기업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첫 번째 한국형 평가도구로써 의미를 갖는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기업 건강증진지수의 확산을 위해 4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등 5개 근로자 건강증진 유관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의 건강은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사업장 스스로 건강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기업의 건강증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정적 우리 회사 건강수준은?... ‘기업 건강증진지수’ 보급

메디컬투데이 박종현(pyngmin@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6-05-04 14:27:39

[메디컬투데이 박종현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건강 위험도를 알 수 있는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개발·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 스스로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취약부분을 보완해 효율적인 건강증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됐다.

‘근로특성’과, ‘건강실태’, ‘건강증진 활동현황’ 등 3개 분야의 20개 평가항목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을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화해 알려준다.

근로특성의 경우, 사업장의 장년근로자 수, 고객응대 업무 근로자 수 등의 내용이며, 건강실태는 사업장의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증진 활동현황은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활동 현황을 입력하면 된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뿐만 아니라, 평가항목을 통해 사업장의 건강상의 잠재 위험도와 요구되는 건강증진 분야도 알려준다.

예를 들어, 5점 척도로 된 ‘잠재 위험도’는 장년이나 장시간, 고객응대 업무 등의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며, ‘요구되는 건강증진분야’는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스트레스, 생활습관개선 분야 등 4개 분야를 점수화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의 건강은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사업장 스스로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기업의 건강증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현 기자(pyngmin@mdtoday.co.kr)

우리 회사 건강지수는 몇 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수준과 취약분야를 쉽게 알 수 있는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개발·보급한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 스스로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취약부분을 보완해 효율적인 건강증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제시된 3개 분야의 20개 평가항목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을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화 하여 알려준다.

3개 평가분야는 ‘근로특성’과, ‘건강실태’, ‘건강증진 활동현황’ 등으로, ‘근로특성’의 경우, 사업장의 장년근로자 수, 고객응대 업무 근로자 수 등의 내용이며, ‘건강실태’는 사업장의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증진 활동현황’은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활동 현황을 입력하면 된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뿐만 아니라, 평가항목을 통해 사업장의 건강상의 잠재 위험도와 요구되는 건강증진 분야도 알려준다.

예를 들어, 5점 척도로 된 ‘잠재 위험도’는 장년이나 장시간, 고객응대 업무 등의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며, ‘요구되는 건강증진분야’는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스트레스, 생활습관개선 분야 등 4개 분야를 점수화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지수는 국내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의 질병발생 특성과 고령·장시간·야간·교대근무 등의 근로특성 등을 반영한 기업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첫 번째 한국형 평가도구로써 의미를 갖는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평가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되며, 활용을 돕기 위한 평가 매뉴얼도 같이 제공된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기업 건강증진지수」의 확산을 위해 5월 4일 서울에 소재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등 5개 근로자 건강증진 유관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들 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회원사 및 소속 사업장에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보급하고, 사업장 보건관리자 교육에 활용하는 등사업장 활용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의 건강은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사업장 스스로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기업의 건강증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기업 건강증진지수’ 개발... 서식·매뉴얼도 보급

근로특성·건강실태 등 20개 입력
점수로 통보... 잠재위험도 알려줘

안전보건공단이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개발·보급한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근로특성’과 ‘건강실태’, ‘건강증진 활동현황’ 등 3개 평가분야의 20개 평가항목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을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화 하여 알려준다.

또한 사업장의 건강상의 잠재 위험도와 요구되는 건강증진 분야도 알려준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국내 산업현장에 증가하는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의 질병발생 특성과 고령·장시간·야간·교대 근무 등의 근로특성 등을 반영한 기업건강

증진활동에 대한 첫 번째 한국형 평가도구로써 의미를 갖는다고 안전보건공단은 설명했다. 이 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평가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평가 매뉴얼도 함께 제공된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업 건강증진지수’의 확산을 위해 지난 4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국기업체 산업보건협의회 등 5개 근로자 건강증진 유관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의 건강은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사업장 스스로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기업의 건강증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 기업 건강증진지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운택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전인식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회장, 정기혜 건강증진개발원 원장, 김동춘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노재훈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 회장, 정혜선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왼쪽부터)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